

# LG, 화학부문 설비투자 1조2000억원

## LG그룹, 편광판·2차전지 중심으로 육성 ... 전체 투자 9조4000억원

LG그룹이 2004년 시설확충과 연구개발(R&D)에 2003년보다 31% 증가한 9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. 화학·에너지 부문의 시설투자는 1조2000억원, 연구개발투자는 3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.

LG그룹은 “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2004년 시설확충에 6조8000억원, 연구개발에 2조6000억원 등 모두 9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”이라고 1월25일 밝혔다.

또 매출규모는 2003년보다 12% 늘어난 95조원, 경상이익은 42% 증가한 4조4000억원을 목표로 세웠고 대졸 신규채용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0% 늘어난 5500명으로 늘려 잡았다.

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고부가가치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해 2003년보다 15% 늘어난 350억달러의 해외수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.

시설투자액 6조8000억원은 2003년 5조1000억원보다 33% 늘어난 것으로 사업 분야별로는 ▷전자·정보통신 5조1000억원 ▷화학·에너지 1조2000억원 ▷건설·유통 및 서비스 5000억원이다.

전자·정보통신 부문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세계 1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PDP 라인 증설과 TFT-LCD 6세대 라인 신규투자 및 파주 LCD 공장 건설, 차세대 단말기 생산설비 확충 등에 4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.

또 인터넷 전화 및 유무선 번들상품 출시를 위한 네트워크 기간망 구축과 광동축 혼합망 등 광통신 네트워크 구축, 통화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 통신서비스 사업에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.

화학·에너지 부문은 2차전지, 편광판 등 정보전자 소재를 비롯해 석유화학 및 에너지, 산업재 등에, 건설·유통 및 서비스 부문은 대형마트 사업에서의 신규점포 확대 및 해외 유전개발 등의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.

연구개발 투자는 2003년 2조1000억원보다 24% 늘어난 2조6000억원이 책정됐는데 전자·정보통신 부문에 2003년보다 21% 증가한 2조3000억원을, 화학·에너지 부문에는 15% 증가한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.

LG그룹은 특히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의 60% 이상인 1조6000억원을 승부사업인 디지털TV, PDP, LCD, 차세대 단말기, 편광판, 2차전지 등의 정보전자 소재 및 생명과학 사업과 신사업인 홈네트워크, 차량 정보단말기,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(DMB) 단말기, 포스트 PC, 유기EL, 유기 광전자, 대체에너지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.

LG그룹 정상국 부사장은 “2004년에는 화학 및 전자·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의 성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1/27>